

‘-어지다’의 의미 기능 연구

李京保

國立高雄大學東亞語文學系副教授

초록

본 연구는 ‘-어지다’의 의미 기능을 분석하여 기술한 것이다. ‘-어지다’는 선행 용언의 성질과 통어적인 특징에 근거하여 크게 <상태 변화 출현> <심리적인 변화 출현> <사태 출현>으로 분류했다. 이 3가지 의미는 상호 관련성이 있고, <변화 출현>이라는 의미로 통합할 수 있다. ‘어지다’는 태의 범주에서 들여다보면 피동보다는 자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상의 범주에서 들여다보면 기동상이라는 기능을 지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지적했다. 자동사화 기능과 기동상이라는 기능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아서 그 2기능은 한 문장 안에서 동시에 읽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 2기능은 <변화 출현>이라는 의미와 잘 어울리는 기능들이다.

주제어: ‘-어지다’, 변화 출현, 자동사화, 기동상

A Study on the Meaning and Function of “-어지다”

Kyong-Bo Lee

Associate professor, National University of Kaohsiung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and describe the meaning and function of “-어지다.” Based on the antecedent component and grammatical characteristics, “-어지다” can b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the appearance of state change, the appearance of psychological change, and the appearance of affairs. These three meanings are inter-continuous, and they can be summed up as the appearance of change. From the category of voice, “-어지다” has a closer relationship with the intransitive sentence than passive sentence. From the viewpoint of aspect, on the other hand, the researcher found that it has the inchoative function in many ways. The so-called intransitive and inchoative functions do not repel to each other. They can be utilized in the same sentence in many ways. In addition, the study indicates that the two functions can be matched with the meaning of “the appearance of change”.

Keywords: “-어지다”, the appearance of change, intransitive-, inchoative

‘-어지다’의 의미 기능 연구

1. 들어가기

‘-어지다’의 의미 기능에 대한 연구는 여러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다.¹ 이 형태에 대해서는 최현배(1937/1961)가 피동을 나타낸다고 한 이래, 피동인가 아닌가에 관하여 논란이 줄곧 이어져 왔으며, 현재까지도 통일된 견해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러한 연구 배경은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교재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어지다’의 의미가 ‘피동’을 나타낸다고 하는 교재가 있는가 하면, ‘상태 변화’, 혹은 ‘상태’를 나타낸다고 하는 교재도 있어, 일괄적인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본고에서는 실례를 가지고 ‘-어지다’의 의미를 자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어지다’ 앞의 용언 즉 선행 용언의 품사 별로 ‘-어지다’의 의미를 분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어지다’의 의미는 선행 용언 이외에도 통어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선행 용언의 성질 및 통어적인 특징에 근거하여 ‘-어지다’의 의미를 고찰한다. 그리고 ‘-어지다’의 의미와 관련이 깊은 문법 기능으로서 무엇이 있으며, 왜 그러한 관련성을 엿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히고자 한다.

2. 기존 연구의 문제점

‘-어지다’의 의미 기능에 대해서는 많은 논고가 나와 있다. 본고에서는 크게 피동설과 非피동설로 나눠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피동설

¹ 본고에서는 ‘-어지다’와 ‘어지다’가 둘 다 쓰여지고 있는데, ‘어지다’는 그 형태만을 가리킬 때 사용하고, 해당 문장 전체 혹은 ‘선행 용언+ 어지다’를 가리킬 때는 ‘-어지다’를 사용한다.

◆피동: 최현배(1937/1961), 김석득(1971), 고영근(1974), 남기심/고영근(1985), 남기심(2001), 최재희(2004), 최규수(2005)², 이수미(2009) 등

◆준피동: 이익섭(2005) 등

◆피동성 표현: 서정수(1996) 등

[2] 非피동설:

◆ “상태의 변화” : 박성중(1984), 이정택(2004) 등

◆ “자동사화” : 유혜원(2000)

◆ “기동상이나 기동화” : 우인혜(1997)

◆ “자동사화” + “상태의 변화” : 송창선(2005)

...

2.1 피동설에 대해

[1]은 ‘어지다’를 피동 범주의 하나의 형태로 보거나 피동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특히 타동사와 어울리는 ‘어지다’를 들어 논하는 경우가 많다. ‘타동사+ 어지다’ 문장인 경우, 그에 대응하는 능동문이 설정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사용되는 ‘타동사+ 어지다’ 문장은 타인의 힘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일어나는 변화인 경우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1)의 ‘좋은 집이 허물어지다’는 집이라는 건축물 자체가 지니고 있는 속성에 의해 일어난 변화이다. (2)는 어떠한가? 이 경우에도 ‘(나는) 눈이 떠지다’는 타인이 내게 직접적으로 어떤 행위를 미쳐 내 눈이 떠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두 문장에서 나타내는 변화에는 피동성을 읽을 수 없거나 약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1) 좋은 집도 인기척이 끊기면 빠른 속도로 허물어져 내려. (엄마, 238)

²김석득(1971), 고영근(1974)은 서정수(1996)에서 재인용.

(2)귀가 예민해져 건넌방의 누가 화장실에 가려고 문만 열고 나와도
눈이 떠졌다. (엄마, 160)

피동설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유혜원(2000)에서도 지적하는 바와 같이 ‘어지다’가 자동사나 형용사와도 결합한다는 점이다. 피동 범주는 타동사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다. 피동설을 주장하는 논고에서는 형용사나 자동사와 어울리는 ‘어지다’를 별도로 취급하거나 예외로 취급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한 연구에서는 ‘형/자+ 어지다’와 ‘타+ 어지다’의 관련성 및 ‘-어지다’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의미 기능에 대해 토론의 여지가 있다. 그 반면에 최규수(2005)는 자동사나 형용사의 ‘어지다’는 ‘게 하다’라는 사동문(타동문)이 전제되어 있고, ‘형/자+ 어지다’는 ‘형/자+ 게 되다’의 피동문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의 두 문장은 최규수(2005:114)가 든 예이다.

○영이가 (철수에 의하여) 가 졌다. ←철수가 영이를 가게 했다.

○화면이 (영이에 의하여) 어두워 졌다. ←영이가 화면을 어둡게 했다.

그러나 실제의 용례를 들여다보면, ‘-어지다’는 문맥에서도 행동주를 상정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최규수(2005)의 주장은 실제 ‘-어지다’의 사용과 거리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어지다’는 피동형(찢기다, 올리다, 찍히다 등)에도 붙는다. ‘어지다’가 피동의 뜻을 나타낸다면 피동형에 다시 ‘어지다’(찢겨지다, 올려지다, 찍혀지다 등)가 붙어야 할 필연성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동사 중에는 접미 피동과 ‘어지다’가 양쪽 다 존재하는 것(찢기다-찢어지다, 꺾이다-꺾어지다, 쓰이다-써지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

2.2 非피동설에 대해

非피동설은 ‘-어지다’가 피동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나타낸다는 견해이다. 非피동설의 견해로 대표적인 것은 “상태의 변화”이다.

이는 형용사에 ‘어지다’가 붙은 경우를 두고 이른 의미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어지다’는 상태 변화를 나타내지 않는 동사에도 붙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상태의 변화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의 (3)이 그렇다.

(3)그것도 얼굴을 마주보고 하기보다는 전화기를 사이에 두고
이루어졌다. (엄마, 46)

“자동사화”라는 견해도 있는데, 이는 ‘타동사+ 어지다’ 문장에서 목적어가 주격 조사로 바뀌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지다’의 선행 용언으로 자동사가 오는 경우가 있다. 자동사에 ‘어지다’가 붙어 다시 자동사화한다는 필연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

“기동상”이라고 하는 견해는 (4)와 같이 변화의 과정 중에 시작 부분을 나타낸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러나 ‘-어지다’에는 (5)와 같이 변화의 과정 자체를 상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어지다’에서는 변화의 시작점을 나타낸다고 할 수 없다.

(4)순간 눈앞이 아득해졌다. (엄마, 41)

(5)가스레인지에는 스테인리스 찜솔이 올려져 있었다. (엄마, 54)

이상의 기존 논고의 피동설과 非피동설의 각각의 의미들은 그에 해당되는 용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각각의 의미들은 ‘-어지다’의 어느 한 부분을 들어 규정한 것이고, ‘-어지다’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의미 기능에는 이르지 못한다고 하겠다. 이에 대해 필자는 ‘-어지다’의 중심적인 의미가 달리 있고, 주목하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것들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어지다’의 의미를 선행 용언을 포함한 통어적인 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어지다’의 의미와 관련이 깊은 문법 기능으로서 무엇이 있는지, 왜 그러한 관련성이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³

³본 연구에서 분석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소설 3 작품에서 추출한 용례 603 개이다.

3 작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본고 맨 뒤쪽을 참조. 이 3 작품을 선정한 데에 특별한

3. ‘어지다’의 의미

기존의 연구에서는 ‘어지다’ 앞의 용언 즉 선행 용언의 품사에 주목하여 ‘-어지다’의 의미를 분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어지다’의 의미는 선행 용언을 비롯하여 통어적인 면에 의해 좌우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용언의 성질 및 통어적인 특징에 근거하여 ‘-어지다’의 의미를 크게 3 가지로 분류하고자 한다.⁴

3.1 상태 변화 출현 (273 개)

이 부류의 ‘-어지다’의 문장은 주어의 자리에는 기본적으로 무정물이 온다. ‘어지다’의 선행 용언으로는 타동사, 형용사, 자동사가 오는데, 먼저 타동사의 용례부터 보도록 하겠다.

(6)뒤집어진 핸드백 속에서 튀어나온 열쇠를 내가 더듬어 찾던 기억도 났다. (사랑, 216)

(7)새집이 지어진 뒤편 맨 먼저 새집의 선반에 그걸 올려두었다. (엄마, 190)

선행 용언이 타동사인 경우, 그 타동사는 객체 변화 타동사이다. ‘객체 변화 타동사+ 어지다’는 (6)을 예로 들면 핸드백의 상태 변화의 출현을 나타내고 있다. 위의 문장에서 ‘-어지다’가 나타내는 상태의 변화는 누군가의 행위(‘핸드백을 뒤집다’)에 의해 만들어졌겠지만, 화자는 그 상태 변화를 만들어낸 행동주에는 무관심이고, 오로지 물체의 상태 변화에만 주목하고 있다. 그것은 통사적인 면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상태

이유는 없다.

⁴용언의 성질은 크게 문법적인 측면과 어휘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어휘적인 측면에서의 용언의 뜻은 용언 하나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연어 단위(동사구/형용사구)로 판단된다.

변화를 일으킨 행동주는 문장 안에 드러나지 않으며, 문맥 안에서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객체 변화 타동사의 예로는 다음과 같다.

- (8) (집)짓다, 꿰다, (불)끄다, (자물쇠)채우다, 찢다, 쏘다, 버리다, 벗기다, 베다, 굽다, 세우다, (옷)펼치다, 어지르다, 허물다, (빵)찌다, 부수다, 심다, 만들다, (불)키다, (울타리)치다, 형클다, 지우다, (새끼줄)둘러치다, 뿌리다, (차)세우다, 흘다, 다물다, 쌓다, 걸치다, 뒤집다, 가리다 등

선행 용언이 형용사인 경우, 그 형용사는 속성,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며, ‘이/가’ 에는 기본적으로 구상적인 명사(물체, 사람의 신체 부위 등)가 와서 속성, 상태의 주체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9)에서는 ‘옷과 몸’이 더러운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10)에서는 ‘눈’의 상태가 빨갛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어지다’는 주어에 일어난 상태 변화의 출현을 묘사하고 있다.

- (9)아침에 옷과 몸이 더러워져 있는 걸 보고 그는 자기에게 몽유병이 생긴 걸 알았다. (시선, 40)

- (10)산에서 돌아오는 아내의 입에선 소주냄새가 나고 눈이 벌게져 있었다. (엄마, 189)

상태 변화의 출현을 나타내는 선행 용언의 형용사로는 다음과 같다.

- (11)끓다, 차갑다, 작다, 간소하다, 빨갛다, 시들하다, 크다, 말끔하다, 다르다, 심하다, 나쁘다, 비옥하다, 뜨겁다, 높다, 세다, 통명스럽다, 미끄럽다, 어둡다, 멀다, 소란하다, 약하다, 복잡하다, 까칠하다, 가난하다, 흐릿하다, 어둑하다, 없다, 떠들썩하다, 많다, 밝다, 이상하다, 질다, 게으르다 등

선행 용언이 자동사인 경우, 이 부류의 자동사는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고, 주어는 물체나 신체 부위, 자연 현상의 명사가 온다. 예를 들어 (12)에서는 ‘얼굴의 표정’에 나타난 상태 변화의 출현, (13)에서는 자연

현상의 변화 출현이 묘사되고 있다.

(12)무참히 굳어진 내 표정을 본 준고가 말했다. (사랑, 105)

(13)그사이 햇살은 노랗게 퍼지고 있었다. (사랑, 122)

이와 같은 ‘-어지다’의 의미를 본고에서는 <상태 변화 출현>이라고 한다. 이 부류의 변화에는 물체의 물리적인 변화(형태, 모양, 크기, 길이, 온도, 품질, 위치 등의 변화)가 있고, 사람 표정의 변화, 자연 현상의 변화가 있으며, 또한 (7)과 같이 어떤 물체가 無에서 有의 상태로 만들어진 것도 포함된다. 이 부류의 변화는 시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구상적인 변화가 주를 이룬다. <상태 변화 출현>의 ‘-어지다’ 문장의 특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상태 변화 출현>의 ‘-어지다’ 문장 특징

선행 용언	‘이/가’	행동주
타동사 : 객체 변화	변화 주체	상정 불가 혹은 무관심
형용사 : 속성, 상태		-
자동사 : 상태 변화		-

3.2 심리적인 변화 출현 (270 개)

이 부류의 ‘-어지다’의 선행 용언으로는 형용사, 타동사, 자동사가 다 올 수 있다. 선행 용언에 형용사가 올 경우, 형용사는 감정/감각/생리적인 움직임의 나타내는 것이고, ‘이/가’는 감정/감각/생리적인 움직임의 대상을, ‘은/는’은 감정/감각/생리적인 주체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14)에서는 내가 그에 대해 무서운 감정, (15)에서는 준고가 배가 고픈 감각, (16)에서는 내게 숨이 거친 생리적인 현상이 출현되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 부류의 ‘-어지다’인 경우, ‘은/는’ 즉 감정/감각/생리적인 주체에 드러난 감정/감각/생리적인 변화(이하, 심리적인 변화)의 출현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본고에서는 <심리적인 변화 출현>이라고 하겠다.

(14)불현듯 나는 그가 무서워졌다. (시선, 138)

(15)하지만 다시 사십 분 동안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준고는 다시 배가 고파진 눈치였다. (사랑, 108)

(16)숨을 고르는데 숨이 더 거칠어졌다. (시선, 69)

<심리적인 변화 출현>의 선행 용언인 형용사로는 다음과 같은 예들이 있다.

(17)무기력하다, 아득하다, 고독하다, 막막하다, 멍하다, 외롭다,
(마음)짠하다, 무감각하다, 무연하다, 떡떡하다, 서럽다, 침울하다,
(가슴)서늘하다, (눈)시다, 자유롭다, 예민하다, 가물가물하다,
(몸)가볍다, 언짢다, (마음)너털너털하다, (신경)날카롭다, 두렵다,
심각하다, 불안하다, (마음)급하다, (가슴)뜨겁다, 혼란스럽다,
미안하다, 무섭다, 우습다, 아찔하다, 당황스럽다, 뻔뻔하다, 고프다,
지겹다, 가엾다, (눈가)뜨겁다 등

<심리적인 변화 출현>를 나타내는 ‘-어지다’는 형용사 외에도, (18)(2)와 같은 타동사, (19)와 같은 자동사와도 어울린다. 이것들도 ‘은/는’의 주체(사람)에 나타난 심리적인 변화의 출현을 나타낸다.

(18)무릎 쪽에도 상처가 났는지 걸을 때마다 통증이 느껴졌다. (사랑, 123)

(2)귀가 예민해져 건넌방의 누가 화장실에 가려고 문만 열고 나와도
눈이 떠졌다. (엄마, 184)

(19)나는 약간 굳어졌다. (사랑, 192)

이 부류의 타동사나 자동사는 모두 다 감정/감각/생리적인 움직임의 뜻으로 쓰인 것들이다. 본 연구의 자료에서 볼 수 있는 예들은 다음과 같다. (20)은 타동사이고, (21)은 자동사이다.

(20)느끼다, 여기다, (긴장)풀다, (몸)부수다, (눈)뜨다, (눈물)쏟다,

(명울)만지다, (넋)빠다, (냄새)맡다, (믿음)뭉개다, 깨닫다,
(인상)찌푸리다, (통증)전하다, (숨)뿔다, (기억)지우다, (기대)채우다,
(뺨)일그리다 등

(21)(가슴)미다, (열기)피다, 굳다, (목소리)겹치다 등

이 부류의 ‘-어지다’ 문장인 경우, ‘은/는’에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오거나, 사람을 상정하여 읽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은 감정/감각/생리적인 주체이어서 [+의지력]인 행동주와 다르다. 그리고 이 부류의 ‘-어지다’는 시각으로 경험할 수 없는 변화가 대부분이다. 그 중에는 시각으로 확인 가능한 변화도 있으나, 그것은 심리적인 작용으로 인해 외면에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

<심리적인 변화 출현>의 ‘-어지다’는 기존의 연구에서는 3.1 의 <상태 변화 출현>과 구분하고 있지 않으나, 본고에서는 이 부류의 ‘-어지다’가 기본적으로 추상적인 변화 출현을 나타내기 때문에 <상태 변화 출현>과 구분했다. <심리적인 변화 출현>의 ‘-어지다’ 문장의 특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심리적인 변화 출현>의 ‘-어지다’ 문장 특징

선행 용언	‘이/가’	‘은/는’
타동사/자동사/형용사 : 감정(감각/생리)적인 움직임	감정/감각/생리적인 대상	감정/감각/생리적인 주체

3.3 사태 출현 (60 개)

이 부류의 ‘어지다’인 경우 그 선행 동사로는 대부분이 타동사이다. 타동사는 객체에 변화를 일으키는 동사뿐만 아니라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동사도 다 올 수 있는데, 이것은 <상태 변화 출현>과 다른 점이다. 그리고

주어의 자리에는 추상 명사가 오는데, 사태, 행위, 정보 등을 나타내거나 그러한 뜻으로 읽을 수 있는 명사가 온다. 예를 들면 (22)(23)에서는 ‘선거’ ‘행사’라는 사태가 누구에 의해 이루어지는지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사태의 출현이 표현되고 있다. 이를 본고에서는 <사태 출현>이라고 한다.

(22)날이 밝으면 나는 서른 살이 되고, 이곳에서는 선거가 치러질 것이다. (시선, 150)

(23)박수소리가 들리고 너는 네 손에 들린 책을 가지고 자리로 돌아왔다. 행사가 계속 이어졌다. (엄마, 41)

<사태 출현>의 ‘-어지다’ 문장들은 화자가 행동주에 관심이 없고, 어떤 상황, 사태의 출현에 초점이 주어졌을 때 사용되는 표현이다. 다음의 2 문장인 경우, (24)는 경찰, (25)는 여관 주인이라는 행동주가 사실상 존재하지만, 화자는 그 행동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사태 출현에 관심을 두고 있다.

(24)마치 유물을 발굴하듯 매우 조심스럽게 파헤쳐서 끄집어냈다는 사실이 조사 결과 밝혀졌다. (시선, 40)

(25)여러 종류의 꽃들과 채소밭을 즐길 수 있는 혜택이 주어졌다. (시선, 49)

다음의 (26)도 이 부류에 속한다. (26)에서의 ‘글’은 단지 문자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글을 쓰는 문학 작품의 행위’를 가리키고 있으며, ‘-어지다’는 사태의 이루어짐 혹은 이루어지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26)어느 순간 문득 그동안 애를 써도 써지지 않던 글이 써졌다. (시선, 151)

(22)-(26)에서는 선행 용언이 전부 타동사이다. 이 부류에는 존재나 빈도의 뜻을 나타내는 형용사(없다, 적다, 잦다)도 올 수 있는데, 그 경우 ‘이/가’는 사태(행위)를 나타내는 추상 명사가 온다. 같은 존재 형용사를 선행 용언으로 가진 ‘-어지다’라고 해도 주어가 구상 명사이면 <상태 변화

출현>에 포함된다.⁵

(27)낙천적이던 사람이 웃는 일도 없어졌다. (엄마, 189)

(28)아내는 어디서나 우두커니 서 있는 일이 많아졌다. (엄마, 192)

<사태 출현>의 ‘-어지다’ 문장의 특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사태 출현>의 ‘-어지다’ 문장 특징

선행 용언	‘이/가’	비고
타동사: 객체 변화/비변화	추상적인 명사:	행동주 무관심/상정 불가
형용사: 존재, 빈도	사태/행위/정보의 뜻	-

3.4 ‘-어지다’ 의미의 전체상

선행 연구에서는 동사와 형용사의 ‘-어지다’를 나누어 생각하려는 입장이 적지 않았으나,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선행 용언이 동사인가, 형용사인가에 따라 의미를 변별하는 것은 그리 유용하다고 하기 어렵다.

표 4 ‘-어지다’ 의미와 선행 용언의 품사

	타동사	형용사	자동사	합계
상태 변화 출현	146	117	12	275
심리적인 변화 출현	154	89	25	268
사태 출현	52	8	-	60
합계	352	214	37	603

⁵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문장은 <상태 변화 출현>에 속한다.

◆이만큼 샀는데 금방 없어진다니까! (엄마, 202)

표 4 를 보면, <상태 변화 출현> <심리적인 변화 출현><사태 출현>어느 것에도 동사와 형용사 둘 다 선행 용언으로 쓰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3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지다’는 크게 3 가지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데, 그 3 가지 의미를 포괄할 수 있는 의미는 <변화 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변화 중에 <상태 변화 출현>은 가장 구상적이고 시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심리적인 변화 출현>은 추상적인 변화이다. <심리적인 변화 출현> 중에는 시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 변화는 심리적인 작용으로 인해 표면에 드러난 변화에 불과하고, 화자의 초점은 심리적인 변화에 있다. 그래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동일한 ‘선행 용언+ 어지다’가 문장 속에서 <상태 변화 출현>을 나타내기도 하고, <심리적인 변화 출현>을 나타내기도 하는 경우가 있다(예를 들면 (12)와 (19)의 ‘굳어지다’). 이는 ‘-어지다’의 의미가 선행 용언 뿐만 아니라 동사/형용사구 나아가서는 문장 전체에서 판단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사태 출현>은 그 어떤 사태(행위)의 출현을 나타낸다. <사태 출현>이라는 의미는 <상태 변화 출현>, <심리적인 변화 출현>과 무관하지 않다. (29)는 구상 물체인 ‘넓은 문’이, (30)에서는 ‘통증’이라는 감각이 無에서 有를 표현하고 있다. (31)에서도 ‘준고의 뒷모습’에 대해 전에 없던 감정이 일어남을 묘사하고 있다. 이들은 구상, 추상적인 것이 존재하지 않던 상태에서 존재하게 됨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사태(행위)가 無에서 有를 나타내는 <사태 출현>은 <상태 변화 출현>과 <감정(감각/생리) 변화 출현>과의 상관성을 엿볼 수 있다.

(29)쇠로 만들어진 넓은 문의 빗장은 굵고 크고 위압적이었다. (시선, 70)

(30)무릎 쪽에도 상처가 났는지 걸을 때마다 통증이 느껴졌다. (사랑, 123)

(31)등을 돌리고 누운 준고의 뒷모습이 낮설게 느껴졌다. (사랑, 198)

통시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이정택(2001)은 15 세기의 ‘-어지다’는 상태 변화의 의미 기능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어지다’는 <상태 변화 출현>에서 추상적인 변화 즉 <심리적인 변화 출현>, <사태 출현>이라는 의미까지 확장되지 않았나 생각한다.⁶

‘-어지다’가 나타내는 변화는 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시간 축 위에 있는 변화이다. 변화는 기본적으로 시간 축 위에서 ‘발생, 지속, 소멸’하게 되는데, 그 3 단계 중에서 ‘-어지다’에 의해 나타내는 변화는 ‘발생’ 단계와 관계가 깊다. 이 점에 대해서는 4.2 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따라서 ‘-어지다’의 3 가지 의미는 <변화 출현>이라는 의미로 묶을 수 있다.

4. ‘-어지다’의 의미와 관련이 깊은 문법 기능

기존의 많은 논고에서는 ‘-어지다’가 태의 범주나 상의 범주에서 그 문법 기능을 밝히려고 했다. 여기에서는 앞 장에서 밝혀진 ‘-어지다’의 의미가 태, 상의 범주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으며, 왜 그러한 관련성이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4.1 태

4.1.1 피동과 ‘-어지다’

‘-어지다’에 대해 최현배(1937/1961)가 피동을 나타낸다고 한 이래, 피동인가 아닌가에 대해 논란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피동은 남기심/고영근(1985: 305)에 의하면 ‘어떤 행위나 동작이, 주어로 나타내어진 인물이나 사물이 제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행동에

6 이정택(2001)의 ‘상태 변화’는 본고의 <상태 변화 출현>을 비롯하여 <심리적인 변화 출현>까지 포함하고 있는지 불분명하나, 그 논고에서 들고 있는 용례로는 본고의 <상태 변화 출현>에 해당하는 용례가 대다수이다.

의해서 되는 것'이라 규정되어 있다. '어지다'의 선행 용언으로는 타동사, 형용사, 자동사로 나뉘지는데, 그 중 본고의 자료에 의하면 타동사가 가장 많다.

(32) 타동사: 352 (58.3%)

형용사: 214 (35.4%)

자동사: 37 (6.1%)

계: 603

전형적인 타동사는 타동성이 강한 즉, 행동주가 타자에게 어떤 행위를 미치는 동작인데, 그러한 동작은 문맥이나 상황 등에 따라 피동자에 초점을 맞춰 피동문으로 표현된다. 그런데 '-어지다'와 어울려 쓰인 타동사(구)에는 타동성이 매우 약하거나 전혀 없는 것들이 적지 않다.

(33)가. (가슴이)갈라지다, 느껴지다, (믿음이)뭉개지다, 믿어지다,

(열정이)쏟아지다, (모니터가 우체통처럼)여겨지다, (진심이)

전해지다, (추억이)지워지다, (가슴이)찢어지다, (기대가)채워지다,

(긴장이)풀어지다 등

나. (오줌 줄기가)뿜어지다, (눈이)떠지다, (몸이)부서지다,

(눈물/오줌이)쏟아지다 등

다. (가슴에 멍울이)만져지다, (흠냄새가)맡아지다 등

(33)은 모두 타동사와 어울린 '어지다'이지만, (33 가)는 감정의 변화, (33 나)는 생리적인 변화, (33 다)는 감각적인 변화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들은 다 비의지적인 변화이다. 이 비의지적인 변화는 타인의 힘이 미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저절로 일어난 변화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피동성이 없거나 약하다 하겠다. 예를 들어 (2)의 '(나는) 눈이 떠지다'는 타인이 직접적으로 내게 어떤 행위를 미쳐 내 눈이 떠진 것이 아니다. 앞에서 든 (18)도 마찬가지다. 형용사나 자동사와 어울리는 '어지다'에 피동성이 없는 것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2)귀가 예민해져 건넌방의 누가 화장실에 가려고 문만 열고 나와도
눈이 떠졌다. (엄마, 160)

사람의 감정, 생리, 감각적인 변화 외에도, 물체 자체가 지니고 있는 속성에 의해 일어나는 변화가 타동사에 의해 표현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34)는 대문에 칠한 페인트칠이 오랜 시간이 지나 저절로 그 칠이 벗겨진 것이 표현되고 있고, (1)은 사람이 사용하지 않으면 집이 빨리 허물어진다는 것이 표현되고 있다. 이 두 문장에서 나타내는 변화는 페인트칠, 집이라는 건축물 자체가 지니고 있는 속성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속성에 의한 변화인 경우에도 피동성이 없다고 하겠다.

(34)페인트칠이 벗겨진 채 두짝으로 된 그 파란 양철대문. (엄마, 241)

(1)좋은 집도 인기척이 끊기면 빠른 속도로 허물어져내려. (엄마, 238)

‘타동사+ 어지다’가 나타내는 변화가 다 비의지적인 것은 아니다. 다음의 (35)의 ‘-어지다’는 의지적인 행위로 인해 일어난 변화를 나타낸다.

(35)(조리 시설이)갖춰지다, (외투가)걸쳐지다, (고등어가)구워지다,
그려지다, (불이)꺼지다, (소식이)끊어지다, (새끼줄이)둘러쳐지다,
(핸드백이)뒤집어지다, (방이)만들어지다, (아이가)버려지다,
(나무가)베어지다, (묘목들이)심어지다, (겔레바구니가)얹어지다,
(집이)지어지다, (빵이)찌지다, (밥상이)차려지다, (자물쇠가)채워지다,
(울타리가)쳐지다, (전등이)켜지다, (옷이)펼쳐지다 등

(35)의 ‘-어지다’는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행위에 의해 나타난 변화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어지다’ 문장이 사용되는 문맥, 장면을 들여다보면, 화자는 행동주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결과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 예를 들면, (36)의 ‘자물쇠가 채워지다’, (37)의 ‘방이 만들어지다’는 누군가가 ‘자물쇠를 채우다’ ‘방을 만들다’라는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으나, 화자는 그 행동주에 관심이 없다. 앞의 (22)-(26)도 다 마찬가지다.

(36)한때 그가 살았던 방에는 굳게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엄마, 96)

(37)문이 열면 방이 나오고 그 방의 사방에 또 문이 있어 열어보면

거기에 또 방이 만들어져 있었다. (시선, 75)

(36)-(37)과 같은 문장은 시라이시(2002)의 “결과태”에 해당하고, 서정수(1996)의 “불구 피동문”에 가까운 것이다. 이 부류의 ‘-어지다’는 다음 절에서 볼 자동 표현과 연속적이라 하겠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동사+ 어지다’라고 해도 비의지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들이 적지 않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행동주를 상정할 수 없고, 피동성도 없다. 또한 타동사 문장 중에는 변화를 일으킨 행동주가 실제상 존재하는 경우가 있지만, 화자는 행동주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결과의 상태나 사태에 초점이 주어진 문장들이다. 따라서 ‘타동사+ 어지다’도 전형적인 피동문이라고 하기 어렵다.

4.1.2 자동사화와 ‘-어지다’

앞에서 ‘-어지다’ 문장은 전형적인 피동문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필자는 <변화 출현>의 ‘어지다’는 자동 표현과 관계가 깊지 않나 생각한다.

자동사는 그 의미에 따라 크게 사람의 의지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동작 동사와 물체의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상태 변화 동사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38 가)의 ‘가다’는 동작 동사의 예이고, (38 나)의 ‘눅다’는 상태 변화 동사의 예이다. (38 가)의 경우는 주어가 행동주인 사람이고, 서술어가 의지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동작 동사이다. 한편 (38 나)의 경우는 주어가 물체이고, 서술어가 그 물체의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상태 변화 동사이다.

(38)가. 철수가 학교에 가다.

나. 얼음이 눅다.

이렇게 보면, <변화 출현>을 나타내는 ‘-어지다’는 (38 나)와 같은 상태

변화 자동문과 많이 유사하다. ‘-어지다’ 문장 중 가장 출현도수가 높은 ‘타동사+ 어지다’에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앞의 (33)과 같은 비의지적인 행위가 두드러지게 많다. ‘자동사+ 어지다’는 크게 (39)와 같이 4 가지로 나눌 수 있다. (39 가)는 감정적인 변화, (39 나)는 생리적인 변화, (39 다)는 감각적인 변화, (39 라)는 구상물의 상태 변화(사람/물체의 모습)나 자연 현상의 상태 변화이다. 이들은 다 비의지적이다. 형용사인 경우는 다 비의지적이라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39)가. (그의 얼굴이)겹쳐지다, (가슴이)미어지다, 여겨지다, (가슴이)

터지다 등

나. 토해 내지다

다. (열기가)퍼지다 등

라. (그의 얼굴이)굳어지다, (팔다리가)늘어지다 // (바지의 솔기가)

터지다 // (독/햇살이)퍼지다, (어둠이 사방으로)흩어지다 등

선행 용언의 비의지성은 주어와도 연관된다. ‘-어지다’ 문장의 주어는 일반적으로 무생물이며 비의지적이다. 주어 자리에 사람이 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 사람은 의지적인 행동주가 아니라, 경험주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행동주는 문장, 문맥 안에서 상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변화 출현>을 나타내는 ‘-어지다’는 행동주가 존재하지 않거나, 행동주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주어의 변화 산출을 묘사할 때 사용된다. 따라서 서술어와 주어의 성질이 상태 변화 자동문과 ‘-어지다’ 문장이 겹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어지다’에 대해 ‘無意圖’의 의미(南秀垌: 2011), ‘동작성 약화’(유혜원: 2000)가 지적되었는데, 이들은 다 상태 변화 자동과 관계가 깊다.

‘-어지다’ 중에는 용언의 어간과 ‘어지다’의 결합이 강해서 독립된 하나의 자동사로 된 것들이 있다. 예를 들면 ‘떨어지다, 쓰러지다’ 등은 현대어에서는 ‘떨다/쓰리다+ 어지다’로 분석하기 어렵고, 한 덩어리로

자동사가 된 것들이라 하겠다. 이러한 어휘의 존재는 ‘-어지다’가 자동사와 관련이 깊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와 같이 <변화 출현>의 ‘-어지다’는 상태 변화 자동문과 유사하다. 한국어의 상태 변화 자동사는 본래부터 어휘구조에 존재하는 고유의 자동사(눅다, 식다 등)와 타동사에 파생 접사를 붙여 만들어진 것들(폴리다, 걸리다 등)이 있다. 그런데 모든 타동사가 파생 접사의 결합에 의해 자동사를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쌓다’는 접사 ‘이’가 붙어 자동사를 만들어내는데, ‘퍼다’는 접사에 의한 자동사를 만들 수 없다. 이와 같이 파생 접사에 의해 표현하지 못하는 자동 표현이 ‘-어지다’로 메꿔지기 쉽다고 하겠다.

(40)가. 책을 쌓다 - 책이 쌓인다

나. 우산을 퍼다 - × - 우산이 퍼지다

4.2 기동상과 ‘-어지다’

‘-어지다’가 나타내는 <변화 출현>은 정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 축 위에 놓인 동적인 변화이다. ‘-어지다’가 나타나는 상태 변화, 심리적인 변화, 사태 변화의 대부분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변화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점진적인 변화는 변화의 시작점에서 서서히 누적되어 변화가 진전될 수 있는 변화를 가리킨다.⁷

(41)딸의 울음소리가 점점 더 커졌다. (엄마, 198)

(42)네 얼굴이 더욱 붉어지네. (엄마, 205)

점진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어지다’는 (41)과 같이 ‘점점, 조금씩’과 같은 점진성을 가진 부사어나, (42)와 같이 정도성을 가진 부사어(‘더, 더욱’)와도 공기하기 쉽다. 또한 (43)과 같이 ‘고 있다’의 문말 형태와

⁷‘점진적’이라는 용어는 須田(2003: 167-170)의 ‘進展的 / 非進展的’의 용어를 번역하여 사용한 것임.

어울려 ‘변화의 진전’을 나타내거나, (44)와 같이 ‘어 가다/오다’와 어울려 ‘변화의 전이’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점진적인 변화는 부사어나 문말 형태로 변화의 과정을 명시할 수 있다.

(43)나는 더욱더 부자연스러워지고 굳어지고 있었다. (사랑, 21)

(44)멀어져 가는 남자의 뒷모습을 보면서 (시선, 27)

이러한 ‘-어지다’는 과거형을 취하면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상태로 변한 순간으로 해석되기 쉽다. 예를 들어, ‘벌게졌다, 거세졌다, 고독해졌다’는 그 상태가 한층 더 누적 가능하기 때문에, ‘-어지다’의 변화는 일어난 ‘시작점’으로 해석되기가 쉽다는 것이다.

(45)생맥주 두잔인데 빈속에 마셔서인지 여동생의 얼굴이 붉어졌다.

(엄마, 131)

(46)늙은 아버지의 흐느낌이 거세졌다. (엄마, 266)

‘-어지다’가 나타내는 변화 중에는 다음의 (47) (5)와 같이 변화가 누적되는 과정이 표현되기 어렵고, 또한 변화의 시작점 자체를 상정하기가 어려운 예들이 다소 있다. 이러한 변화를 비점진적인 변화라고 하겠다. 비점진적인 변화의 ‘-어지다’인 경우 (41)-(42)와 같은 부사어나 (43)-(44)와 같은 형태에 의해 변화의 과정을 나타낼 수 없다.

(47)실내등이 켜진 거실에 정적이 흘렀다. (엄마, 133)

(5)가스레인지에는 스테인리스 찜솔이 올려져 있었다. (엄마, 54)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지다’가 나타내는 변화는 변화 과정성의 유무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점진적인 변화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변화 즉, 비점진적인 변화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차이는 주로 선행 용언의 성질에 좌우된다. 본고의 자료에 의하면 2 종류의 변화 중에 점진적인 변화가 비점진적인 변화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따라서 ‘-어지다’는 상의 범주에서 들여다보면 기동상이라는 문법 기능과 관련이 깊다 하겠다. 기존의 연구(우인혜: 1997)에서 ‘-어지다’가 기동상을

나타낸다고 한 것은 이러한 점진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용언과 어울리는 ‘어지다’의 경우를 들어 이룬 것이다.

이상은 ‘-어지다’의 의미와 관련이 깊은 문법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다. ‘-어지다’는 태의 범주에서 보면 자동사화 기능과 겹치는 부분이 크고, 상 범주에서 들여다보면 기동상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 이 2 기능은 <변화 출현>이라는 의미와 잘 어울리는 기능들이다. 또한 이 자동사화 기능과 기동상이라는 기능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그 2 기능은 한 문장 안에서 동시에 읽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48)손에 날이 번득이는 큼지막한 흥기를 들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공포에 사로잡힌 내 입에서 울음이 쏟아졌다. (시선, 35)

예를 들어, (48)의 타동사 ‘(울음을) 쏟아’가 ‘어지다’와 어울리면서, ‘(울음이) 쏟아지다’ 즉 자동사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동시에, ‘-어지다’의 변화가 변화의 시작점으로 읽을 수 있기에 기동상이라고 할 수 있다.

5. 나가기

본 연구는 ‘-어지다’의 의미 기능을 분석하여 기술했다. ‘-어지다’는 선행 용언의 성질과 통어적인 특징에 근거하여 크게 <상태 변화 출현> <심리적인 변화 출현> <사태 출현>의 3 가지 의미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3 가지 의미는 <변화 출현>이라는 의미로 통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화 출현>을 나타내는 ‘-어지다’는 태의 범주에서 들여다보면 피동보다는 자동사화의 기능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상의 범주에서는 기동상이라는 기능을 지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지적했다.

자동사화 기능과 기동상이라는 기능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그 2 기능은 태 범주와 상 범주라는 다른 관점에서 드러나는 기능들이다. 따라서 그 2 기능은 한 문장 안에서 동시에 읽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 2 기능은 <변화 출현>이라는 의미와 잘 어울리는 기능들이다.

참고 문헌

- 남기심, 『현대 국어 통사론』 (서울: 태학사, 2001)
- 남기심/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 (서울: 탑출판사, 1985)
- 남수경, “‘어지다’ 意味 考察에 대한 試論-類型論的 觀點에서,” 『어문연구』 제 39 권 3 호(2011), pp. 175-202.
- 남수경, “ ‘-히-’계 접미사 구문의 한 유형에 대한 고찰- 한국어 가능 피동의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제 37 호, pp.77-102.
- 서정수, 『현대 국어 문법론』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원, 1996)
- 손세모들, 『국어 보조용언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1996)
- 송창선, “현대국어 피동접미사의 특성,” 『국어교육연구』 제 36 집, pp.129-148.
- 송창선, “현대 국어 ‘-어/아 지다’의 기능과 의미,” 『문학과 언어』 제 27 호(2005), pp. 1-24.
- 시라이시 치애미, “한국어의 태와 이른바 피동 표현,” 『문창어문논집』 제 39 호(2002), pp.23-46.
- 시라이시 치애미, “피동표현과 가능속성구문,” 『우리말 연구』 제 23 집(2008), pp.113-138.
- 이수미, “한국어 피동 개념의 재해석과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 제 128 호(2009), pp.457-479.
- 이익섭, 『한국의 탐구 33 한국어 문법』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05)
- 이정택, “ ‘-지(디)-’의 통시적 변천에 관한 연구,” 『국어학』 제 38 호(2001), pp.117-134.
- 우인혜, “국어 피동의 범위,” 『국어학』 제 26 호(1995), pp.99-124.
- 유동준, “국어의 능동과 피동,” 『국어학』 제 12 호(1983), pp.193-212.
- 유혜원, “‘아/어지다’의 의미 기능 연구,” 『어문논집』 제 41 호(2000), pp. 453-480.

- 최규수, “ ‘되다’와 ‘지다’의 피동성에 관하여,” 『한글』 제 269 호(2005), pp. 101-134.
- 최재희, 『한국어 문법론』 (서울: 태학사, 2004)
- 최현배, 『우리말본』 (서울: 정음문화사, 1937/1961)
- 金水敏, “受身文の固有・非固有性について,” 『近代語研究 9』 (東京: 武蔵野書院, 1993)
- 工藤真由美, “現代日本語の受動文,” 『ことばの科学 4』 (東京: むぎ書房, 1990)
- 久野 章, “中立受身文と被害受身文,” 『新日本文法研究』 (東京: 大修館書店, 1991)
- 沢田治美, 『視点と主観性』 (東京: ひつじ書房, 1993)
- 柴谷方良, “ヴォイス 日本語・英語,” 『講座日本語学 10』 (東京: 明治書院, 1982)
- 須田義治, 『現代日本語のアспект』 (東京: 海山文化研究所, 2003)
- 孫 東周, 『日本語の動詞とヴォイス』 (ソウル: J&C, 2005)
- 中右 実, “動作主と経験者,” 『認知意味論の原理』 (東京: 大修館書店, 1994)
- 仁田義雄, 『日本語のヴォイスと他動性』 (東京: くろしお出版社, 1991)
- 村木新次郎, “ヴォイス” 『講座日本語と日本語教育 4』 (東京: 明治書院, 1989)
- 吉田金彦, “可能・自発の助動詞,” 『国語学研究事典』 (東京: 明治書院, 1977)

용례 출전

- (엄마) 『엄마를 부탁해』, 신경숙, 창비(2008)- 235 용례
- (사랑) 『사랑 후에 오는 것들』, 공지영, 소담출판사(2005)- 152 용례
- (시선) 『한낮의 시선』, 이승우, 이룸(2009)- 216 용례

